

왕세자(太子)는 왕(王)의 아들이며, 왕(王)의 아들이 왕세자(太子)가 된다는 것은, 왕(王)의 아들이 왕(王)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하여 왕(王)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王)의 아들이 왕(王)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하여 왕(王)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王)의 아들이 왕(王)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하여 왕(王)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서약식(誓約式)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대승정은 「페하는」과 「정의와」 사상으로 영국연방을 통일할 것을 서약하였다. 「페하는」와 「정의와」 사상으로 영국연방을 통일할 것을 서약하였다. 「페하는」와 「정의와」 사상으로 영국연방을 통일할 것을 서약하였다.

전(前)의 손실(損失) 얼마나 큰 것인가 알수 없다. **平和所在** 那邊 또 제2차대전(第二次大戰)에 아메리카와 연합한 각국이 상실한 군함 수로는 三六五척이고 이외에도 일반선박의 무수한 상실 숫자도 있다.

비행기(飛機)는 一九四一년부터 五년간에 연합국의 손실은 四萬六千八百대였고, 日獨伊측은 四萬二九百대다. 그러나 연합국측 숫자중에 米英蘇三大國의 손실숫자는 포함되지 않

있어서 북한과 남한에 있어서 일선에서 쓰러진 우리 청년과 유엔군(聯合國軍)의 혼은 물론이요 그로인하여 생긴 많은 외로운 과부와 높은 부모들과 피난민으로 죽은 많은 고혼과 피리군에게 학살을 당한 동포형제자매와 그로인하여 생긴 많은 고아들의 원한과 눈물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몸소 당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며 전사하고 학살되고 소포당한 유족이 가장 불행하며 그들의 생애가 암담한 것이니 우리는 실로 동정의 눈물을 금할 수 없다. 이때에 동포형제로서의 정의로나 또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대

왕(王) 앞에 이르러 대승정은 두 손으로 冠을 높이 드려 女王(女王)이 머리에 쓰셨다. 다시 승정(承政)은 두세 발자국 물러 서서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할 때 옆에 있던 귀족들도 각각 자기들의 관을 쓰는데 화중은 그때에 일제히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하는 고함의 호소를 하고 연일(連日)에서 六十二명의 貴族(貴族)들이 王座(王座)에 陪坐(陪坐)하였다. 四十一명의 貴族(貴族)가 관을 들였다.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하는 고함의 호소를 하고 연일(連日)에서 六十二명의 貴族(貴族)들이 王座(王座)에 陪坐(陪坐)하였다. 四十一명의 貴族(貴族)가 관을 들였다.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하는 고함의 호소를 하고 연일(連日)에서 六十二명의 貴族(貴族)들이 王座(王座)에 陪坐(陪坐)하였다.

한 동정과 책임을 다할 각 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본을 기념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취할 태도를 생각하고자 하노니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국난을 당했고 또 아직 당하고 있는 이때에 희생된 이들의 원혼을 생각하고 그 유족과 고아들과 상이군인의 참정을 살펴

서 우리는 깊이 자숙하는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아직도 일선에서는 굶주린 장병이 쓰러지고 무수한 상이 병과 고아가 울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무심히 슬마시고 요리를 먹으며 사치와 행악을 할 수 있으랴. 깊이깊이 경계할 것이다.

한 동정과 책임을 다할 각 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본을 기념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취할 태도를 생각하고자 하노니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국난을 당했고 또 아직 당하고 있는 이때에 희생된 이들의 원혼을 생각하고 그 유족과 고아들과 상이군인의 참정을 살펴

燦爛한戴冠式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하는 고함의 호소를 하고 연일(連日)에서 六十二명의 貴族(貴族)들이 王座(王座)에 陪坐(陪坐)하였다. 四十一명의 貴族(貴族)가 관을 들였다. 「하나님이여 엘리사벳女王을」 직히소서」 하는 고함의 호소를 하고 연일(連日)에서 六十二명의 貴族(貴族)들이 王座(王座)에 陪坐(陪坐)하였다.

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여 이 무서운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전란에 관한 것은 다들 변해 가는데 까지 쓰려한다.

國連의武力行使를非難

婦人國際平和連盟夫人談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대표자 국연에는 정식으로 유자버이 1941년 1월 1일부터는 한달전에 일본을 방문하여 전국각지방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견으로는 한국에 국연함이 무려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평화협정을 지체하고 있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에서는 각정당간에 문제되고 있는 모양이나 일본평화협정은 지체야 한다. 그것은 전 주군이 일본에 남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일본은 평화협정을 지체할 때 어떤 압력이 오든지 그것들을 들리쳐야 한다. 일본이 재군비를 하게 되면 아시아의 각 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일본 자신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국고금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써야 하고 일본인의 기술훈은 같은 아세아인종문화향상에 공헌하기 바란다. 아메리카도 우리를 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비무장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과 중공(中共)도 국제연합에 가맹하게



○六二五 사면이 일어난지 일어난지 만 삼년 생각하면 엄청난일이 다. 처음에는 몇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삼년을 끌게 되고도 아직 끝이 안나오니 이렇게 오랜 전란을 겪고 그렇지 않아도 작은 반도에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살만 할인가. ○그동안 이리저리 파피티 도시가 五十五 개소 총합이 二천여개소 약 일천만에 가 까운 사람이 집을 잃었고 해메고 一백五十만 내지 二백만이란 많은 고아가 생겼다. 그리고 그동안 희생된 우리 국군의 수만도 오십여 만명이 되니 적군의 하나공산군 침략으로 인한 화와 자유의 빛가는 엄청났기이다. 이렇듯 커다란 손실과 화를 당하고 이만한 빛과 실로 극히 귀한 빛과 실을 내리고 그대도 아모리한 소욕이 없다면 이북의 실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통일도 안된다면 이런 어둡한 일이 어디있는가 이 어둡한 일을 어디다가 호소할 것인가. ○이렇듯 우리를 어둡하게 한 자가 누구냐 아직도 통일이 못되는 까닭이 남에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 을 저야 할 것이 아닌가. 이 형제 기막힌 불행중에도 원수가 사방에 둘러있는데 아직도 서로 당파파가 갈려서 싸우고 안에서 갖은 사치와 행악을 마음대로 하니 어찌잔갑일고.

○六二五 사면이 일어난지 일어난지 만 삼년 생각하면 엄청난일이 다. 처음에는 몇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삼년을 끌게 되고도 아직 끝이 안나오니 이렇게 오랜 전란을 겪고 그렇지 않아도 작은 반도에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살만 할인가. ○그동안 이리저리 파피티 도시가 五十五 개소 총합이 二천여개소 약 일천만에 가 까운 사람이 집을 잃었고 해메고 一백五十만 내지 二백만이란 많은 고아가 생겼다. 그리고 그동안 희생된 우리 국군의 수만도 오십여 만명이 되니 적군의 하나공산군 침략으로 인한 화와 자유의 빛가는 엄청났기이다. 이렇듯 커다란 손실과 화를 당하고 이만한 빛과 실로 극히 귀한 빛과 실을 내리고 그대도 아모리한 소욕이 없다면 이북의 실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통일도 안된다면 이런 어둡한 일이 어디있는가 이 어둡한 일을 어디다가 호소할 것인가. ○이렇듯 우리를 어둡하게 한 자가 누구냐 아직도 통일이 못되는 까닭이 남에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 을 저야 할 것이 아닌가. 이 형제 기막힌 불행중에도 원수가 사방에 둘러있는데 아직도 서로 당파파가 갈려서 싸우고 안에서 갖은 사치와 행악을 마음대로 하니 어찌잔갑일고.

動亂三週년에傳道로厥起

關東地方三週間連續集會

東京教會集會盛況

海軍四十一名 參席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회에서는 유별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관동지방회에서는 六月二十四일부터 약三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일차순번으로 유별전도집회를 개최한다.

六月二十四日 多摩川전도소
六月二十五日 東京전도소
六月二十六日 東京전도소
六月二十七일 東京전도소
六月二十八日 東京전도소
六月二十九日 三浦전도소
七月一日 三浦전도소
七月二日 三浦전도소
七月三日 三浦전도소
七月四日 三浦전도소
七月五日 三浦전도소
七月六일 三浦전도소
七月七日 三浦전도소
七月八일 三浦전도소
七月九일 三浦전도소
七月十日 三浦전도소
七月十一일 三浦전도소
七月十二일 三浦전도소
七月十三일 三浦전도소
七月十四일 三浦전도소
七月十五日 三浦전도소
七月十六일 三浦전도소
七月十七일 三浦전도소
七月十八일 三浦전도소
七月十九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一日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二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三日 三浦전도소
七月二十四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五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六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七日 三浦전도소
七月二十八일 三浦전도소
七月二十九일 三浦전도소
七月三十일 三浦전도소

東京교회에서는 五月三十一日 주일에 한국해군 六十五함대 원사관 이하 41명과 함께 예배하였다. 특히 이날은 이 함대에서 한국 다대기지에 전입하게 되는 금상도소령에게 세례를 주는 예식이 있었고 김동일씨(해군)의 독창도 있었다.

예배는 이정열장로의 사회로 오순절복사의 「마침내 함께 배 탄자」라는 제목 설교가 있었고 송창설(종군) 목사의 인도하는 해군성가대의 찬송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자는 여자 74명 남자 128명이 있었다.

信徒倍加에西南서도活躍

婦人傳道連合會도協力

西南지방회에서는 지난달 二十三日 오후 四시에 下關교회에서 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一) 지방회 총회는 九月十五日 부터 三日간 수영회와 아울러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 김태일전도사 이선조장로 한연수 장로에게 구체적인 일임하였다.

(二) 西南지방회에서는 지난달 二十三日 오후 四시에 下關교회에서 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三) 西南지방회에서는 지난달 二十三日 오후 四시에 下關교회에서 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四) 西南지방회에서는 지난달 二十三日 오후 四시에 下關교회에서 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事變에犧牲된

宋昌根博士를생각함

송박사는 정다운 친구였다. 만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온 얼굴에 웃음을 띠고, 「형님 오라간만이외다. 뵈면이나 한그릇 잡숫지요!」 이렇게 사람을 끌고 놓지 않는 친구였다.

그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별호가 만우(晩雨)였다.

宋博士 略歷

咸鏡北道에서 出生하고
日本青山學院에서 工夫
아메리카 프린스턴大學에서
神學을 研究, 神學博士
勸勵前까지 朝鮮神學校校長

雨)인지 모르거니와 : 늦게 시작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동안 그의 고생이야 다시 말할것 없었다.

그는 일군이었다. 해방후 조선 신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위생고 대학까지 만들고 경남 교회까지 짓고 많은 열심전제 민학생과 교우까지 먹여 살리기까지 한 그 수고와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그를 중심으로 모인 친구들과 젊은이들은 순전히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랑을 끌고 놓지 않는 매력에 이끌려 모여든 것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장

면의 청년회 연합수요회와 우리들은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좋으나 이번에는 성결전도를 중심으로 하기를 바랐다. 벌써 몇해동안 수양회는 있었으나 우리의 기여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여된다면 이만 감하여 전향한 전회와 논리에 관한 잘못된 이해(誤解)에서 생겼던 동지들을 이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이온만 강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론도 상당의 준비가 되어야 이르기 속의 비약이 없어야 전회나 몇몇하고 철학하게 전회 되었다면 피차의 신앙생활에 좋은 상식과 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 주일연보는 一〇四五〇원이

차 무슨 일이 될것일까요? 그는 불행이 미국갔다가 병을 얻었다. 고혈압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는 관절염 반신불수의 환자 이었다.

그는 왜 사변때 서울을 탈출하지 아니하였는지, 마침내 점령지구의 시민을 약탈물로 아는 공산군에게 잡혀서 걸어서 북으로 가는 길이었다. 병적인 그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오직 수욕과 매와 주임이 다 처음 따랐었다. 무도한 괴뢰군의 눈에 「정다운 친구 귀족 한 존재인 송박사」가 있을리가 없다.

가진지 못하고 열어지고 주저앉

(一) 캐나다 선교부에서 파견한 선교사 一名은 서남지방에 주재할 것을 요청할 것.

(二) 교포교회에 문서 전도를 힘쓰고 자매단체의 열악을 긴밀히 하여 개척전도에 노력 할 것.

(三) 六月三일부터 十日간은 부인전도회 연합회에서 주최한 순회 전도를 협력한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성경을 무료로 보내는 일본 정성서회(家庭聖書會)에서는 「목사님 이거 웬 일이십니까 제가 읽고 가지요」

그는 그 젊은이에게 「형님 나를 내려놓고 어서 가시오 불식 같이 희생될 필요가 있소? 나를 두고 가시오! 이리하여 할수없이 그 젊은이는 가고 그는 열어져서 집에서 최후를 마친 것이다. 괴뢰군의 총에 죽었는지 자진했는지 어디서 어느날 어느시에 최후의 숨을 쉬었는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나 알가 하나도 없이 아슬뿐이었다.

無料聖經으로

家庭聖書會

一八月중순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전도회의의 전도활동을 협력하며 교포교회에 노력하기로 한다.

이회의는 안영준목사의(地方會會長)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修

베드로 후서

(新約) (講解)

求道者

受信人 年代... 베드로 후서는...

修養會中心을 聖經研究에

세상을 이기고... 성경 연구에...

結婚

金東憲君 朴玉蘭... 결혼...

受洗者五千餘

七萬三千卷配布

일본에 이 사업을... 受洗者五千餘... 七萬三千卷配布...

再軍備反對の左社支持

總選舉日本基督者傾向

일본 국회의원 총선거로... 再軍備反對の左社支持... 總選舉日本基督者傾向...

泰州宣教師北轉釋放

泰州宣教師北轉釋放... 宣教師의...

講壇



집

田榮澤

『집』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가는 것이라 고 옛사
람이 말하였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세상에
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아니
한 사회도 있을가 아직도 현
실 세계에는 짐을 안지고 평
안히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집 짐은 사람이 있는 곳에
는 반드시 있는 것이요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가 발달된 오늘
날에도 사람이 짐을 면할 수는
없다 짐으로 인한 고통은 면
할 수 없다. 자동차나 비행기에
실물 수 없는 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짐도 있다 마음
의 짐이 더 무겁고 괴로운
수가 있다.

☆
어찌하여 사람에게 이 짐이
란 것이 내려졌고 사람이 왜
짐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게
되었는가 사람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철학자의 머
리를 세인 것이다.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한 것
자 그것은 차라리 그를 괴롭
게 할 따름이요 아모 보람이
없는 것이다.
어찌하면 짐에 눌려서 쓰러

지는 일이 없이 살 수 있을가
이것을 우선 도의적으로 사회
적 도의심으로 본다면 많은
짐을 지고 그 짐이 힘에 겨
워서 허덕여서는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혹은 대신해주는 것
이 있을 것이다. 옛날 시조
이 고전 저 늙은이
집 벗어 나를 주소
나는 풀 벗어 너
들 일을 무거운가
늙기도 설어라 하는
장조차 지설가

이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
다. 사람마다 모두 이런 마음
을 가지고 있으면 짐 때문에
고생하는 이는 훨씬 적어지고
세상은 매우 나아 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고 그
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한 것도 이와 같은 정신
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정 반
대의 현상이다 예수께서 당시
의 거짓 종교가와 가짜 지도
자들을 책망한 말씀 가운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 23:4) 한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은 세상의 인심이다.
남의 짐을 덜어주고 대신

저주지는 못할 저런 짐도
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
자기는 뭘 손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교만한 인심이다
내 짐은 남에게 맡기고 나
는 평안이 지내는 것을 도리어
장하게 하는 평안이다.
예수께서는 짐을 지고 애쓰
며 허덕이는 인간을 하며 부
르셨으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
11:28)
인간의 역사에 볼 때 이
말은 언제나 참고 아픈 말들이
도 될 만한 말들이다.
무거운 짐을 덜어 주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아주 말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만 맡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이는 오라고 하신 것이다.

傳道欄

사랑은 이긴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을 흔
히 하고 사랑하는 일도 가끔
있다. 그러나 요새 사랑이란
말은 너머도 천해지고 현대에
와서 고생과 번민이 하도 심
하고 하도 세상에 거짓이 많
고 그리고 너머 냉정한 데 지
친 인간은 소위 사랑이라는
말은 염증이 나고 심지어 반
감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의 고독과 번뇌는 너머
도 심각해서 여간 사랑을 가
지고는 그들에게 위안을 주지

위하여는 말도 못 부쳐볼 것이
요 그네를 볼 그 가운데서 구
할 생이도 낼 수 없다.
세상은 차고 괴로운 파멸에
도 분만 아니라 세상은 너머
악하여 불참고 아스팔트 길
아시 여간한 사람을 가지고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
기에 꼭 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만은 모든 불참은 내
정과 완악한 것을 녹이고 모든
악을 이긴다.
하와이에 『볼로카』라는 성이

머리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이란 것은 물
론 정신적인 짐 이외의 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지라도 인간의
모든 짐을 유혹의 말로 신다
보아도 들림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짐의 문
제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도
해결 해주셨다.
우리가 각각 짐 짐가사를
대신 지심으로 인간의 가장 화
가 되는 『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지
시되 내 것으로 내 짐으로 알
고 지신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자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다 오한복음에 『예수
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19:17) 한 것은 예수의 본의

이 『무거운 짐』이란 것은 물
론 정신적인 짐 이외의 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지라도 인간의
모든 짐을 유혹의 말로 신다
보아도 들림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짐의 문
제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도
해결 해주셨다.
우리가 각각 짐 짐가사를
대신 지심으로 인간의 가장 화
가 되는 『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지
시되 내 것으로 내 짐으로 알
고 지신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자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다 오한복음에 『예수
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19:17) 한 것은 예수의 본의



學校講座
教會教師
教授結果의測定

教授結果의測定

(四)

생각을 기술할 줄을 알고 있는
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만 피상적으로 듣고 암송한 것
인가? 예컨대 성서를 자료로
사용한다 처자 그들은 성서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
움이 된다는 절실한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로
택하였는가? 어디서 무엇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그
사용법은 잘 익숙되었는가? 그
언령 및 그들의 정도에 따라서

2 학생은 공동 작업을 할
때에 공동하게 몹을 맡아야
하고 책임을 공동히 할당해야
한다. 예컨대 가옥금 가구 연
어와 문화 정부 국가의 산
업 등의 종류를 연구한다고 하
자 문제의 범위가 넓이니 네
학생에게 한 부분을 책임지
게 하여 각기 연구하여 보고케
하는 것이다.
3 학생들이 연구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문헌 유적자
자연물 학회 등의 자료를 옮겨
찾을 줄 아는가? 또 자기의

생각을 기술할 줄을 알고 있는
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만 피상적으로 듣고 암송한 것
인가? 예컨대 성서를 자료로
사용한다 처자 그들은 성서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
움이 된다는 절실한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로
택하였는가? 어디서 무엇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그
사용법은 잘 익숙되었는가? 그
언령 및 그들의 정도에 따라서

는 성서사건 백과사전 동화집
등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그
이용방법을 알고 있는가? 찬송
가의 이용법도 잘 알고 있는
가? 만일 이러한 기술이
잘 발달되기만 한다면 그들의
성찰에 큰 공헌이 될 것은 명
약관화한 것이다.
4 어떤 지상에 부다쳐면서도
시작한 일을 완결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가? 또 이것이 대
단히 가치 있다는 실감을 가
지고 있는가?
네 타 고독과의 관계.

학생은 선한 생활과 하나님
의 사랑과 그 사랑을 중심으
로 할 때에는 자연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거기에 소속
되며 그 안에서 자기가 마땅
히 할 일을 책임지고 싶고
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
모든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보편적인 것이며 가장 큰
목적과 예수에게 대한 충성을
중심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원 전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없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에
여항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참을 때에 따듯한 우정에 접하
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소녀는 전부가 자
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한 사람
으로 밖에는 살 수 없다는 자
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점
점 자라감을 따라 자기도 교
회와 일체가 될 것인가 아닌가
를 작정해야 할 시기를 당하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예수를...

어떤 종교가는...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데...

그것이...

물론...

“홍 다미엔은...

이렇게...

그리고...

대만에...

그러나...

香氣 시계를돌리는힘

옛날에 어떤...

하노니...

“사람이...



扶餘 (落花岩)

가짜...

古都의片模 (三)

小説 새벽 종 (十五) 田榮澤 作

日基社勢研究熱心

사회문제 연구하며 복음전도자들의 시대감각에 견식을 높이고 사회문제 전문위원회를 두었는데 지난 9월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권위자 후지바야시(慶大教授)와 노동자총평의 사무국장 다카노미노루氏의 강의를 받았다.

작은 네 손
첫 꼭지를 간질여 주던
부드러운 네 입술
마음속 명을을 녹여주
환락이는 네 두 별

산에 영산 흥이
철이 높고
알 노을이
랑조랑
그의 남쪽나라
고향 가는 길

어제 휘황 청청
리치는 시냇물
도랑
르른 동헛물
내 고향
찾아가는 길

김도성
一九五、十一月二

같은 데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나, 날자를 합쳐서 쓰는
이치를 잘 배워야 나중에 말
본을 배울 때에 도움이 됩니
다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위의
날자 스를 꼭 자료만 적어야
합니다.
(가. 나. 다. 리. 네) 와 같이

같은 데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나, 날자를 합쳐서 쓰는
이치를 잘 배워야 나중에 말
본을 배울 때에 도움이 됩니
다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위의
날자 스를 꼭 자료만 적어야
합니다.
(가. 나. 다. 리. 네) 와 같이

죽은은 북방에서 (2)
태호는 몸시도 소란한 하루
밤을 지나서 전에 없이 일출
이러났다. 그동안 비는 몇몇
대 사방은 폭풍이 잠시 지나
간 뒤처럼 고요하다. 무시무시
하게 고요하다.

그때도 형편을 보려고 대문
을 열고 밖에 나가 사방을
돌러보았다. 대문밖 길에는 개
들이 왔다갔다 허둥을 하고
언덕위 과부네 집에서는 한
덩이 한마리가 살살 돌고있다
몇십 아래 눈은이는 어느새
나와서 장죽(장땃대)를 뒷집
을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다.

태호는 좀 큰 길쪽으로 나
가보았다. 이집저집에서 사람들
이 많이 나와서 수선거리는데
이 눈에 띄인 다음 순간 그
는 불라운 일을 발견했다. 남
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지고 이고 줄레줄레 말없이
지나갔다. 동대문쪽에서 오는것
은 분명하다. 그리고 벌써 거
리의 상점은 죄다 닫혔

다. 태호는 가슴이 섰하고
머리에 무슨 불길한 예감을
주는듯한 자극을 받았다.
「어디서 들 오시오」
태호의 묻는 말에

「동대문 밖에서 옵니다」하는
사람도 있고 「미아리에서 옵
니다」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각각 다르나 웨 오느냐고 묻
는 말에는 시인한 대답이 없
다. 모두 말하기를 꺼리는 모
양이다. 어떤 노파를 붙들고
물어보았더니

「다 왔어요 문밖에는 다 왔
어요 그놈들이 막 명구를 물
고와서 어제 밤새두룩 싸웠는
데 이 쪽이 골짜기하고 다
어디로 가버렸답니다. 문안에나
들어오면 살것같아서 옵니다」
이 말을 듣고 태호는 짐으
로 뛰어들어왔다.

그동안에 벌써 봉수가 와서
피난가자고 야단이다. 바루 지
난밤에 가장 큰 소리하던 사
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별서 종소리면 탕크가
올고고 불경이들이 나와서 만
세를 부르구 야단이랍니다. 중
앙청에는 벌써 봉은 기가 달
렸답니다. 만세 한부르면 막
총살을 준답니다. 어서어서 당
장 임을거나 하고 갔전거나
싸가지고 나가세요 아니야요
포니 어물어물하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가전이버려질
지도 모르니까... 아주머니
그때두 걱정을랑 하세요...」
어쨌중을 둘러서 우두커니
서있는 명애와 형신같은 시어
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봉수는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리자 밖
에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서루루는 바깥에 정신없이 잠
을 싸가지고 급호호호으로 한
강편을 향하여 가실의 길을
따라나섰다.
큰 길에 나서니까 종안이

技術本位와
迅速親切로
市民健康을
保護하려는

永野齒科醫院
院長 永野豊生

福岡市下東町一四

福音醫院

本醫院之醫療傳道目的特設開設
內科、小兒科、外科、內臟外科、產婦人
科、皮膚科、性病科、各科擔任醫師完備

一、治療時間

午前九時—十二時
午後二時—五時
午後六時—九時
往診隨時宿直醫師二人有

一、特別健康相談部

1、兒童健康相談部
毎月第二、四木曜日
自午後六時—至八時
相當醫師元京都府立醫科大學教授
醫學博士 三宅 廉

2、結核相談部

毎月第一、二、三、四木曜日
自午後五時—至七時
擔當醫師 醫學博士 長岡弘道

場所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九〇九ノ四七
(前南方教會堂)
但阪急南方驛前徒歩約二町